

“ 의인의 시련과 승리 ”

■ 이종윤 원로목사

시편 3권은 거의 아삽의 시로 되어 있다. 아삽과 그의 자손은 레위족으로 솔로몬 성전 짓기 전 다윗왕때 회막에서 봉사하던 악관(樂官)으로 시인이며 예언자로 활동했다. 아삽의 매력 중 하나는 자신에 대해 정직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 주변을 살폈다. 시인의 마음에 평정을 잃게 만든 것은 물질이나 이성 또는 명예의 유혹이 아니라 악인들의 행동이었다. 상선벌악(賞善罰惡)의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전도되어 버린 역현상을 경험하게 된 시인은 이로 인해 상심하고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의 섭리마저 회의를 느껴 하마터면 실족할 뻔 했노라고 서술하고 있다.

왜 악인은 흥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다리라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므로 그에게 물을 수도 없다고 한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본시에서는 악인의 심판에 대해 무지하거나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아니다. 악한 자의 궁극적 종말은 이 세상 너머에 있고, 의인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삽은 정직하게 눈을 떠 세상을 보고 문제의 대답을 위해 하나님께로 온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고 선언을 한다. 그럼에도 아삽은 그의 근본적 입장이 흔들리고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순수하시고, 견고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형통함이 있으니 시인은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고 고백한다. 상선벌악을 기대했던 시인에게 악인의 형통함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아삽의 진정한 문제는 그 악인을 질투하게 되어 「넘어질 뻔하였다」고 한다. 악인의 부와 건강과 번영이 자기의 것과 비교할 때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도 된다. 지적인 문제라기보다 감성적으로 수용키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께 비난을 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한다.

아삽은 자기 죄에 대해 정직했다. 영적으로 미끄러져 넘어질 뻔 했을 때, 악인을 살펴보니 그는 완벽한 건강과 부요하여 자신의 욕망보다 더 많이 가졌고 형통하여 재앙을 모르고 살아 고생 없이 지나고, 교만의 목걸이와 폭력의 옷을 입고, 하늘같이 높아진 듯 자궁하며 광인의 손에 들린 흥기처럼 거저된 독설을 멋대로 휘두르고 온 땅을 휩쓸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알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했다. 우리가 악인에게 질투심에 차 있을 때, 하나님은 선한 백성을 때리고 계시지 않는가? 이러한 사회상을 목격하는 시인의 심사가 편할 수가 없다. 악인에 대한 질투, 자신에 대한 허탈감, 무지한 백성에 대한 분노, 섭리에 대한 회의 등으로 인하여 그 마음의 지성소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다. 원하는 바를 성도는 얻을 수 없고,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고통이 따른다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눈을 감고 악인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아삽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가 본 바대로 행하고, 질투하지 않을 사람을 질투할 때에도 아삽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는 악인의 행동을 보고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잊지 않는 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의 복잡성을 자신의 지혜로 해독할 수 없음을 알게 된 시인은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그의 갈등과 회의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 불신앙의 내리막길로 빠져가다가 악한 자의 최후 운명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악인의 운명은 지옥에 떨어져 멸망케 된다는 진리를 터득한 아삽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함으로 터득한 진리였다. 제단 위에 제물을 태우는 불은 악한 죄의 심판을 생각하게 했다. 성소에서 자신의 좁고 죄악된 세계관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는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를 체험했다. 악인의 마지막은 망한다는 것과 의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하는 복을 영원히 누린다.

-한국장로신문 [제1645호] 2019년 6월 8일 발채-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Dong Woo Park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Cor 6:9-11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Rev. Euichang Kim
Anthem	Congregation
Sermon	“Inherit the Kingdom of God” Rev. Euichang Kim
* Hymn	488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혜(사이사), 이은준(김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김보디아, 전호진(미안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아사,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미디가스 카르,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투바노저, 필리핀, 프르산트, 수레시, 수바쓰, 이경업, 일로르, 비사누뵤드, 보다소프, 린트, 수란존(방글라데시), 박영성(총회), 강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근교)
--	---

	<p>천국시던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p>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이 종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p>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p>
--	--

“ 하나님은 인간처럼, 인간은 하나님처럼 ”

■ **벧후 1:3-4**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말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는 말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동물을 창조하실 때 엄청난 차별을 두셨다는 말로서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지 않았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고 인간에게는 신적 속성, 즉 신성이 인간 안에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명제는 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을 갖고 계신다
 놀랍게도 에스겔서 1장은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겔 1:26). 보좌 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으므로,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고, 에스겔에게 그것이 사람의 형상으로 보인 것입니다.

2.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어떤 한 단면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어떤 신적인 속성, 신성(divinity)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공통분모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지만, 마치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나님은, 즉 인간과 하나님은 이렇게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깊이 상호 침투되어 인간과 하나님은 공통의 속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3. 성육신(incarnation)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미래를 보여준다
 성육신(incarnation)이란 말은 ‘성스러운 분’ 즉 하나님이 육신, 즉 인간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공존합니다.(골 2:9-10) 예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처럼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동시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면서, 동시에 그 분은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구원의 목표는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완전히 꽃피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인간 안에 계신다는 요한복음 5:4-5 말씀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이 없어지고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상호간에 깊이 침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이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맺는 말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으므로 존엄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기독교 복음과 성경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를 제외한 상태에서 인간이 왜 존엄한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창조하였는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특히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나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북한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데 이때 우리는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자옥을 이야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기존의 기독교인은 북한 주민들에게 잘못된 유희론적 세계관을 지적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가르쳐주어야 하는데 그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시므로 구원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김철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최형열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차도훈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인 도 자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울 2:28-29...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 찬 송 Hymn3(2)..... 다 함 께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5(성령강림1)... 다 함 께
-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 기 도 Prayer 말 은 이
- 찬 송 Hymn183(172)... 다 함 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단 7:7-14... 인 도 자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대
-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 설 교 Sermon ...“하나님, 인자 그리고 짐승”... 김철홍 목사
- * 찬 송 Hymn94(102)... 다 함 께
-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 목 도 다 함 께
- 성 시 시 106:4-5 인 도 자
- 찬 송 449(377) 다 함 께
- 기 도 차영도 집사
- 성 경 빌 1:27-30 인 도 자
- 찬 양 찬 양 대
- 설 교 ... "복음에 합당한 생활" ... 설 교 자
- * 찬 송 445(502) 다 함 께
- * 축 도 설 교 자
-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 기 도 전광환 권사
- 성 경 막 5:21-43 인 도 자
- 찬 양 찬 양 대
- 설 교 ...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 설 교 자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

6월10일(월) - 15일(토)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장석남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박준호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호주	박수강	윤주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벧후 1:3)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부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 모임

- 리브가 전도회 6월 월례회 / 9일(주) 3부 예배 후 101호
- 2019년 홍해작전 참모회의 / 9일(주) 3부 예배 후 후문 야외(한티공원쪽)

◆ 알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금일 세례식 문답 실시 / 6월 세례식이 6월 16일(주) 저녁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문답총정리는 6월 9일(주) 오후 1시30분에 105호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6월 9일(주) 오후 2시에 105호에서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례교육부 010-7743-3223으로 문의바람
-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정현구(치과), 노선균(홍부외과)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김봉배(통증의학), 김관섭(영상의학) 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4.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p> <p>15.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철홍 목사님(장신대 신약신학 교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p> <p>16. 계속되는 홍해작전 새벽 기도회에 더 많은 성도들(주일학교 학생들이)이 참여해 함께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p> <p>◆ 결 혼</p> <p>1. 한우혁 군(12교구 한상학 성도, 김선희 권사의 장남)과 황유림 양(6교구 황정옥 집사, 주경자 권사의 차녀) / 6월15일(토) 오후 12시 30분 송도센트럴파크호텔 4층 로즈홀 / 오전10시 30분 교회 출발 / 인천 1호선 센트럴파크역 3번 출구</p>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76명	232명	195명	1,303명	129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6/2)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6월 2일	헌 금	44,572,150	
	특별예배비		74,100
	찬양운영비		7,180,000
	교회학교운영비		566,700
	선 교 비		3,003,000
	출 판 비		250,000
	지원교회		200,000
	복리후생비		107,000
	통 신 비		2,657,020
	차량유지비		323,900
	잡 비		28,124,200
	환경유지비		50,000
	수선유지비		2,202,590
	식당운영비		1,621,260
	합 계	44,572,150	46,359,770